

# 학교 안전교육 실태 분석을 통한 안전교육 개선 방향

# 목 차

I. 서론 .....	11
II. 우리나라 사고발생 실태 .....	13
1. 연령별 사고사망 실태 .....	13
2. OECD 국가의 어린이 사고유형별 사고사망 비교 .....	14
III. 우리나라 학교안전교육 실태 .....	18
1. 학교안전교육 실태조사 대상자와 조사방법 .....	18
2. 학교안전교육 실태 .....	21
3. 학교안전교육 요구도 현황 .....	23
IV. 학교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	29
1. 안전교육 교과과정 정립 .....	29
2. 안전교육 인력육성 및 교사 안전교육 재·보수 교육 활성화 .....	33
3. 안전윤리교육 강화 .....	36
4. 학교안전관리 담당 활성화 .....	37
5. 체험과 문제해결 중심의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활성화 .....	38
6. 시민단체들의 안전캠페인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구축 .....	42
참고문헌 .....	43

## I. 서론

현대인의 생활습관과 관련이 깊은 사망원인 중 최근 불의의 사고에 의한 사망이 전연령층에 걸쳐 심각한 보건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30세 이전 청년층의 주요한 사망원인으로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청소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정책적, 교육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수 차례의 대형사고를 겪었으며 이로 인하여 무수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들 중 우리나라의 총 사고 사망률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에서 매우 높은 순위에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으며, 국제아동기구(UNICEF)의 최근 보고서(2002)에서도 1998-2000년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사고로 사망하는 어린이 수가 한국이 14.8명으로 스웨덴과 영국의 3.8명에 비해 2-3배나 높은 것으로 미루어 우리나라 어린이 사망률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나 학부모, 학생들은 사고의 가능성이나 위험에 대한 심각성을 거의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서 크고 작은 어린이 및 청소년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불감증’이 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이명선, 2001).

CDC(1984)의 보고에 의하면 주요 사망원인 중 운수사고와 같은 불의의 사고사망 중 69%가 평소의 생활습관에 의해 설명된다고 하였다. 또한 생활습관의 운수사고에 대한 기여도는 다른 어떤 주요사망원인에 대한 기여도 보다 높아서 다른 주요 사망원인들 보다 불의의 사고가 평소의 안전생활습관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고도 다른 질병과 같이 고위험군과 위험인자가 있으며 이들을 적절히 통제하는 안전한 생활습관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안전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사고방식, 태도를 함양하는 체계적 학교교육이 학제 전체에 걸쳐 장기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은 발달특성상 안전에 대한 인식이나 대처능력이 부족하며 사고의 위험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안전에 관한 태도나 실천행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사회적 가치관 형성이라는 중요한 과정을 거치는 어린이 및 청소년기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 학습동기와 습득력이 강한 시기이므로 교육을 통하여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다(장석민, 1999).

그러나 실상 우리나라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에 관한 연구나 프로그램 개발이 이제 시작단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도 학교안전교육에 별도의 독립과목이나 시간이 할당되지 못하고 관련과목의 일부 단원들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나마도 실제 교육에서 우선 순위가 밀려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최광석 등, 2001).

이는 학교안전교육에 대한 법적, 제도적 의무규정이 없고 교사교육 부재 및 교재의 부족 등의 문제들과 맞물려 있어서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학교안전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안전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학교안전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앞으로 학교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안전교육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 우리나라 사고발생 실태

### 1. 연령별 사고사망 실태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사고발생은 중·장년기의 사고발생보다 훨씬 심각하다. 연령별로 주요 사망원인을 살펴볼 때 29세 미만 연령층의 사망원인 1위는 운수사고로써 자동차와 관련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세 연령층에서는 5대 주요 사망원인의 3개 병인이 사고로써, 1위 운수사고, 4위 익사사고, 5위 낙상사고 순이었다. 반면 30대 이상 연령부터는 사고의 상대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1. 연령별 사망원인 분포

단위: 인구 10만명당, 명

연령	1위	2위	3위	4위	5위
총계	암 130.7	뇌혈관질환 77.2	사고 40.2	심장질환 37.2	당뇨병 25.1
1~9	운수사고 8.0	악성신생물 4.0	선천성기형 2.6	익사사고 2.4	낙상사고 2.0
10~19	운수사고 7.4	악성신생물 4.0	자살 3.5	익사사고 1.5	심장질환 1.2
20~29	운수사고 13.7	자살 12.5	악성신생물 7.2	익사사고 1.5	뇌혈관질환 1.2
30~39	악성신생물 22.2	자살 18.6	운수사고 13.9	간질환 8.3	심장질환 6.2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2003

특히, 사고유형별 어린이와 청소년 사고 사망분포를 5세 단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교통사고가 모든 사고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익사사고가 중요한 사망원인이었는데 고등학생 연령부터는 익사사고 발생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15-19세 청소년들에게는 재해사고 발생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는데 과중한 입시부담, 친구 및 가정문제 등 복잡한 사회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부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2. 사고유형별, 연령별 어린이 사고사망 분포

단위: 명(%)

사고유형	5-9세	10-14세	15-19세
교통사고	240 (53.8)	95 (39.8)	401 (53.1)
낙상사고	27 ( 6.1)	12 ( 5.0)	13 ( 1.7)
화상사고	23 ( 5.2)	6 ( 2.5)	7 ( 0.9)
익수사고	91 (20.4)	53 (22.2)	47 ( 6.2)
중독사고	2 ( 0.4)	1 ( 0.4)	5 ( 0.7)
자해	0 ( 0.0)	31 (13.0)	203 (26.9)
가해	28 ( 6.3)	17 ( 7.1)	32 ( 4.2)
기타	35 ( 7.8)	24 (10.0)	48 ( 6.3)
계	446 (100.0)	239 (100.0)	756 (100.0)

출처: 사망원인통계연보, 통계청, 2003

## 2. OECD 국가의 어린이 사고유형별 사고사망 비교

우리나라 사고사망 분포의 특징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사고발생 수준이 중년기 이후 사고발생 수준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이다. OECD 가입국가들 중 선진국들의 사고발생은 어린이나 청소년층보다는 노인 층에 빈발하는 사고유형이 많아 청·장년층으로 갈수록 사고발생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우리나라는 청·장년 및 노인층의 사고발생보다는 어린이와 청소년층의 사고발생이 높아서 저연령층의 사고예방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기치 못한 사고 뿐만 아니라 자살, 타살 등의 사고들을 모두 포함할 때 2002년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59.9명의 사고사망 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OECD 가입국가들 중 상위에 속하는 높은 수준이며 연도별로는 2000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강화로 2000년 이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의 총 사고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사고사망자가 약 30명 수준인 네덜란드, 영국, 싱가포르에 비교하면 거의 2배에 이르는 수준이었다. 15-24세 청소년의 사고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7.79명이었는데 이는 OECD 가입국가들 중 낮은 수준이

어서 사고사망률이 매우 낮은 네덜란드나 싱가포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5-14세 어린이의 사고사망률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어린이들의 사고예방 및 안전교육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표 3 참조>.

표 3. OECD 국가별 총 사고 사망자 수 (단위: 명/인구 10만명당)

국가	총 사고	성 별		어린이 (5~14세)	청소년 (15~24세)
		남	여		
헝가리(2000)	95.17	128.63	64.66	7.46	35.25
프랑스(1999)	74.69	91.04	59.24	6.27	43.38
폴란드(2000)	66.66	101.35	33.88	8.31	43.17
일본(1999)	59.99	81.93	38.98	4.90	28.98
대한민국(2002)	59.90	81.10	38.60	10.07	27.79
불가리아(2000)	56.95	87.18	28.25	12.09	249.72
노르웨이(1999)	55.60	66.76	44.68	5.12	43.14
미국(1999)	55.41	78.18	33.65	9.71	61.12
멕시코(2000)	52.70	85.61	20.46	13.32	50.94
스웨덴(1999)	48.43	60.83	36.32	4.98	25.61
이탈리아(1999)	46.95	58.46	36.08	4.44	33.78
캐나다(1998)	43.84	59.32	28.66	7.42	41.16
호주(1999)	43.64	61.37	26.07	5.63	47.02
스페인(1998)	42.83	63.30	23.24	5.96	37.95
그리스(1999)	42.43	63.58	21.89	6.68	52.05
독일(1999)	41.50	53.78	29.79	5.09	36.14
이스라엘(1998)	33.81	46.57	21.39	6.28	31.29
영국(1999)	32.94	42.26	23.89	3.63	28.16
네덜란드(1999)	32.82	38.55	27.20	5.23	23.69
쿠웨이트(2000)	30.09	39.08	16.10	9.26	42.31
싱가포르(2000)	25.90	37.12	14.70	4.10	24.06

출처: <http://www3.who.int/whosis>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은 2002년 현재 인구 10만명당 19.10으로 그리스 다음으로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5-14세 어린이 교통 사고사망 수에서도 같았다. 그러나 과거 인구 10만 명당 20명 이상의 교통사고 사망률을 보였던 것을 비교해 볼 때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청소년(15-24세)의 사고사망률은 크게 감소하여 OECD 국가들 중 중간정도의 위치를 차지하였다. 특히, 교통사고 총 사망률로 볼 때

는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그친 일본의 청소년 교통사고 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11.97로 우리나라 청소년 교통사고 사망률 13.38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어린이(5-14세) 교통사고 사망률은 거의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표 4. OECD 국가별 교통 사고사망자 수

(단위: 명/인구 10만명당)

국가	총 사고	성 별		어린이 (5~14세)	청소년 (15~24세)
		남	여		
그리스(1999)	21.12	32.11	10.46	4.51	35.04
대한민국(2002)	19.10	27.40	10.80	4.92	13.38
쿠웨이트(2000)	16.58	21.98	8.17	5.99	30.13
스페인(1998)	15.63	24.29	7.34	3.62	23.24
미국(1999)	15.07	20.61	9.77	4.22	26.24
폴란드(2000)	14.92	23.68	6.64	3.27	17.17
프랑스(1999)	13.39	20.04	7.12	3.08	26.72
이탈리아(1999)	13.37	21.41	5.78	2.61	22.60
헝가리(2000)	11.92	18.47	5.95	2.24	13.69
불가리아(2000)	10.49	15.81	5.44	2.44	74.59
일본(1999)	9.30	13.14	5.63	1.71	11.97
캐나다(1998)	9.13	12.47	5.85	2.87	16.09
호주(1999)	9.05	12.68	5.46	2.53	17.31
멕시코(2000)	8.97	14.38	3.67	2.79	10.39
독일(1999)	7.86	11.68	4.22	2.00	19.17
노르웨이(1999)	6.93	9.92	3.99	2.22	14.08
네델란드(1999)	6.61	9.80	3.49	2.77	12.56
영국(1999)	5.70	8.36	3.12	2.01	10.53
이스라엘(1998)	5.64	8.89	2.48	1.08	10.62
스웨덴(1999)	5.52	7.83	3.26	2.92	8.15
싱가포르(2000)	5.24	8.59	1.90	0.61	10.38

출처: <http://www3.who.int/whosis>

중독에 의한 사고사망에 있어서 한국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호주, 미국, 폴란드가 중독사망 사고에 있어서 심각한 수준이었고, 우리나라는 그에 비하면 1/5에도 못 미치는 인구 10만명당 0.60명으로 낮은 사망 수를 보였다. 중독사고는 어린이나

청소년층의 사고사망비가 매우 낮아서 어린 연령층보다는 30세 이후의 청장년층이 중독사고의 고위험군임을 알 수 있었는데, 불가리아, 호주, 그리스, 미국의 청소년(15-24세) 중독사고율이 특히 높았다.

낙상사고에 있어서, 헝가리와 노르웨이가 인구 10만명당 각각 30.59와 21.52의 사망자를 보고하여 낙상사고 사망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멕시코, 네덜란드, 미국은 낮은 분포를 보였는데 우리나라는 10만명당 5.76명이 낙상사고로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이탈리아에 비하면 1/5수준으로 낮았으나, 우리나라 5-14세 어린이와 15-24세 청소년들의 낙상 사고 사망 수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어린이와 청소년층의 낙상 사고 발생이 심각하였으며 이는 계단과 난간, 베란다에서의 어린이와 청소년 추락사고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빈번함을 말해 주는데 이에 대한 부모교육과 관리규정이 보다 철저히 수립되어야 하겠다.

우리나라의 화재사고 사망률은 다른 OECD 가입국가들 중 높은 편에 속했다. 헝가리가 인구 10만명당 1.8명 사망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쿠웨이트였으며 그 다음 미국과 노르웨이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높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화재사고 사망자가 인구 10만명당 1.20명이었는데 일본이 1.17명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스라엘과 싱가포르가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경우 5-14세 어린이 군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가 0.09인 반면, 우리나라는 3배가 넘는 0.31이었고, 15-24세 청소년의 경우도 스웨덴은 0.10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의 7배가 넘는 0.74명에 이르렀다.

일본이 다른 사고유형에 있어서는 OECD 가입국가들 중 매우 낮은 분포를 보였으나 익사사고에 있어서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익사사고율이 낮은 네덜란드에 비해 거의 10배에 달하는 사고사망률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가들 중 중상위 수준으로서 과거 3년 동안 크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의 어린이 및 청소년의 익사사고 사망자 수는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두 나라 모두 크게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단, 일본은 아직도 성인의 익사사고율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총 익사사고율이 많이 낮아졌으며 일본과 함께 15-24세 청소년의 익사사고율에 큰 감소를 보였다. 그러나 일본은 14세 미만 어린이의 익사사고율도 많이 감소한데 반해 우리나라 14세 미만 어린이의 익사사고율은 아직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 환경 개선과 함께 물놀이 안전행동, 응급상황 대체 및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

### Ⅲ. 우리나라 학교안전교육 실태

#### 1. 학교안전교육 실태조사 대상자와 조사방법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안전교육 실시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1개 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 소재한 42개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담임교사들을 대상으로 2003년 10월 28일부터 11월 14일까지 16일간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한 우편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는 전국 총 42개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담임교사가 참여하였다. 조사 대상 학생 수는 2,067명으로 초등학생이 1,033명, 중학생이 550명, 고등학생이 484명이었다. 또한 421명의 초, 중, 고등학교 담임교사들도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그 중 초등학교 교사가 142명, 중학교 교사가 118명, 고등학교 교사가 161명이었다.

표 5. 안전교육 실태조사 대상 학교와 대상자 수

대상학교 수	담임교사 수	학생 수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14개교	초등학교: 142명 중학교: 118명 고등학교: 161명	초등학생: 1,033명 중학생: 550명 고등학생: 484명
총 42개교	총 421명	총 2,067명

대상학교 및 대상자 선정은 표본추출에 대한 참고문헌 및 전문가의 자문을 기초로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대상 학교들은 층화무작위표출법(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이용하여 전국을 광역시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1개 특별시와 6개 광역시로 나누어 선정하였다(서울, 부산, 대구, 울산, 인천, 광주, 대전). 1차적으로 각 시에 속하는 2개씩의 구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각 구에 속하는 초, 중, 고등학교를 1개교씩 다시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중 각 1개 반씩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선정된 학급의 학생 전원에게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사대상의

설문조사는 선정된 초등학교 5-6학년 담임,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 전원에게 교사용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무작위 추출의 기준으로 난수표를 사용하였다.

본 우편설문조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크게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교사용의 3가지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지 내용 영역은 크게 학교안전교육실태, 사고발생 실태, 안전교육 요구도, 사고예방지식, 사고예방행동, 학교 내외의 유해환경 그리고 일반적인 특성으로 이루어졌다.

#### 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초·중·고등학생 총 2,067명의 일반적 특성으로 남학생 비율이 초등학생은 52%, 중학생은 72%, 고등학생은 46% 이었다. 가족과의 거주상태별로 초·중·고등학생 모두 80% 이상이 부모님 두 분 모두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등학교 방법은 학령기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걸어서 통학한다는 초등학생이 85.4% 이었는데 반해 중학생은 67.8%, 고등학생은 20.6%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들이 증가하였다.

부모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는 초등학생 학부모가 중·고등학생 학부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님이 평소에 안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지에 대해서 초·중·고등학생 모두 50%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국 총 421명의 담임교사들 중,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33.7%, 중학교 교사가 28.0%, 고등학교 교사가 38.2%이었다. 학교계열별로는 대부분 인문계 학교에 재직하고 있었다. 교사경력별로는 3년 이상 10년 미만이 28.8%이었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30.0%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녀비가 비슷하여 여교사의 비율이 56.1% 이었으며 결혼상태에 있어서 68.7%가 기혼자였다.

#### 나.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실태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초등학생은 32.3%, 중학생은 34.1%, 고등학생이 28.8%로 약 30% 내외의 학생들이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를 당한 횟수에 있어서는 초등학생의 62.1%를 비롯하여 중고등학생들에서도 50% 이상이 사고경험이 있었는데, 4회 이상의 사고다발 경험을 가진 학생의 비율이 중학생은 14.5%, 고등학생은 11.5%로 매우 높은 경향을 보였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로 초등학생에 있어서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 23.7%의 학생이 학교 건물 내라고 대답했으며 그 다음이 학교운동장과 집안 순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다. 중·고등학생들의 사고 역시 학교 건물 내, 학교 운동장, 집안의 순으로 보고되어 집에서보다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사고를 많이 당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주요한 원인으로 초등학생 중 40.9%가 학생 간 싸움이나 장난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이 학생의 부주의라고 하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은 사고발생의 원인으로 학생의 부주의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는데 중학생 사고경험자의 41.8%와 고등학생 사고경험자의 42.9%가 학생의 부주의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6. 지난 1년간 학생의 사고경험 여부와 사고횟수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명(%)	명 (%)	명 (%)
사고경험 여부			
예	324 (32.3)	184 (34.1)	136 (28.8)
아니오	679 (67.7)	356 (65.9)	337 (71.2)
사고 횟수			
1회	187 (62.1)	92 (57.5)	57 (54.3)
2회	65 (21.6)	31 (19.4)	24 (22.9)
3회	27 ( 9.0)	14 ( 8.8)	12 (11.4)
4회 이상	22 ( 7.3)	23 (14.5)	12 (11.5)

표 7. 지난 1년간 학생이 경험한 사고의 발생장소

(\* 복수응답)

사고발생 장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명(%)	명(%)	명(%)
학교 건물 내	107 (23.7)	49 (23.6)	40 (28.0)
학교 운동장	69 (15.3)	37 (17.8)	23 (16.1)
학교 주변	18 ( 4.0)	10 ( 4.8)	7 ( 4.9)
집에서 학교사이 등·학교길	34 ( 7.5)	14 ( 6.7)	13 ( 9.1)
집안	65 (14.4)	29 (13.9)	15 (10.5)
집 주변 골목이나 도로	61 (13.5)	19 ( 9.1)	6 ( 4.2)
놀이터나 공원	30 ( 6.7)	10 ( 4.8)	4 ( 2.8)
큰 도로 주변	14 ( 3.1)	12 ( 5.8)	15 (10.5)
산이나 바다(여행 중)	6 ( 1.3)	6 ( 2.9)	4 ( 2.8)
기타	47 (10.4)	22 (10.6)	16 (11.2)

## 2. 학교안전교육 실태

학교안전교육 실태에 있어서, 안전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초등학생은 87.4%, 중학생은 72.4%, 고등학생은 56.4% 순으로 초등학생들의 학교안전교육 정도가 높았으며 학교게시판, 가정통신문, 교내방송을 이용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학기에 1-2회 정도로 응답하여 수업시간 이외의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도 학교에서 안전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받았던 안전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초등학생은 교통안전과 학교안전에,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화재안전과 물놀이 안전에 대한 안전교육 경험이 높았다. 받았던 안전교육 방법으로 초·중·고등학생 모두 강의가 50% 정도를 차지했고 그 다음이 '비디오 및 DVD 상영'이었다.

표 8. 학생들이 학교안전교육을 받은 시기

안전교육 받은 시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명(%)	명 (%)	명 (%)
수업시간	461 (46.7)	121 (26.4)	59 (15.9)
조회시간	315 (31.9)	177 (38.6)	162 (43.8)
학생사고가 발생한 후에	174 (17.6)	73 (15.9)	73 (19.7)
특별한 학교행사	349 (35.4)	148 (32.3)	121 (32.7)
교내 방송을 통해서	184 (18.7)	47 (10.3)	51 (13.8)
방학 직전과 직후	247 (25.0)	102 (22.3)	92 (24.9)
기타	128 (13.0)	28 (6.1)	32 (8.6)

\* 복수응답

교사가 응답한 학교안전교육 실시에 대해서, 학교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교사가 전체 87.6%여서 대부분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었다. 교사가 인지하는 학교, 학부모, 교사들의 학생 안전에 대한 관심과 지지도는 중상 정도의 수준이었다.

담임교사들이 인지하는 학교안전교육 실시상의 어려움은 '담당시간이 없다'(36.0%)와 '교재나 참고자료 부족'(22.5%) 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안전에 대한 연수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는 전체의 14.3%에 불과했다.

표 9. 교사들의 학교안전교육 실시현황

구 분	명	(%)
안전에 대한 학교의 관심		
전혀 그렇지 않다	1	0.2
그렇지 않다	18	4.3
보통이다	159	37.8
그렇다	204	48.5
매우 그렇다	39	9.3
안전에 대한 교사의 관심		
전혀 그렇지 않다	0	0
그렇지 않다	5	1.2
보통이다	103	24.5
그렇다	240	57.0
매우 그렇다	73	17.3
안전에 대한 학부모의 지원		
전혀 그렇지 않다	12	2.9
그렇지 않다	56	13.3
보통이다	196	46.6
그렇다	135	32.1
매우 그렇다	22	5.2
안전교육 실시경험		
있다	369	87.6
없다	52	12.4

표 10. 교사의 학교안전교육 실시상의 어려움 및 안전교육 연수 경험

구 분	명	(%)
안전교육 실시상의 어려움		
담당시간이 없어서	147	36.0
담당할 교사가 없어서	47	11.5
교재나 참고자료 부족	92	22.5
교사 연수교육 부재	31	7.6
안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학교의 인식부족	48	11.8
기타	43	10.5
안전교육에 관한 연수경험		
있다	61	14.5
없다	360	85.5
안전교육 연수의 주체		
대학기관	3	4.2
시민단체 관련기관	12	16.9
시·도 교육청	29	40.8
기타 정부기관	15	21.1
사기업	0	0
기타	12	16.9

### 3. 학교안전교육 요구도 현황

#### 가. 학생

학교안전교육 요구도에 있어서, 60% 이상이 학교안전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였고 안전교육 전문교사가 교육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알맞은 교육 시수로 초등학생은 매주 1시간이, 중, 고등학생은 매월 1시간이 적당하다고 하였다. 교육방법으로는 실험 및 실습교육과 비디오 및 DVD 상영을 희망하였다.

학생들이 배우고자 희망하는 안전교육 주제영역을 1위에서 3위까지 조사해본 결과, 초등학생들이 배우고자 희망한 안전교육 주제영역으로서 1위에 뽑힌 것

은 가정안전과 화재안전이었고, 중학생은 교통안전과 가정안전이었으며 고등학생이 배우고자 희망하는 안전교육 주제 1위는 교통안전과 화재안전이어서 공통적으로 교통안전, 화재안전, 가정안전의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최근 어린이와 청소년 사고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놀이 스포츠 안전과 수상안전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11. 학생의 학교안전교육 요구도 특성

단위: 명(%)

내 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b>학교안전교육 실시의 필요성</b>			
전혀 그렇지 않다	27 ( 2.7)	20 ( 3.7)	21 ( 4.4)
그렇지 않다	27 ( 2.7)	28 ( 5.1)	24 ( 5.0)
보통이다	215 (21.3)	152 (27.8)	119 (24.8)
그렇다	311 (30.8)	198 (36.3)	196 (40.8)
매우 그렇다	430 (42.6)	148 (27.1)	120 (25.0)
<b>학교안전교육의 책임자</b>			
담임교사	198 (19.7)	83 (15.2)	40 ( 8.4)
안전교육 전문교사	599 (59.7)	351 (64.4)	376 (78.7)
보건교사	117 (11.7)	57 (10.5)	27 ( 5.6)
체육교사	26 ( 2.6)	35 ( 6.4)	10 ( 2.1)
기타	64 ( 6.4)	19 ( 3.5)	25 ( 5.2)
<b>학교안전교육의 적절한 시간 수</b>			
학기당 5시간 이하	119 (12.0)	128 (23.7)	127 (26.5)
학기당 6-10시간	96 ( 9.6)	81 (15.0)	69 (14.4)
매월 1시간	319 (32.1)	168 (31.2)	161 (33.6)
주당 1시간	322 (32.4)	104 (19.3)	76 (15.9)
주당 2시간 이상	139 (14.0)	58 (10.8)	46 ( 9.6)

초등학생이 원하는 안전교육 방법은 실험 및 실습교육 방법이 54%이었고, 50.0%가 비디오 및 DVD 상영이었다. 이러한 안전교육 방법에 대한 선호경향은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에서도 같은 분포여서 나타나 학생들이 원하는 안전교육 방식은 직접 시도해 보는 실습과 견학위주의 교육과 비디오나 DVD 상영으로 요약되었다. 학교에서 시급히 보완하여 다루어야 할 새로운 안전교육 영역에 대한 질문에 초, 중, 고등

학생 모두에서 ‘따돌림으로부터의 안전’과 ‘학교폭력 안전’에 그 요구도가 매우 높았다. ‘전자 상거래 안전’과 ‘사이버 음란물 안전’도 그 요구도에 비중이 있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함께 높아졌다.

표 12. 학생들이 배우고자 희망하는 학교안전교육의 주제 영역

단위: 명 (%)

희망 내용	1위	2위	3위
<b>초등학생</b>			
가정안전	268 (26.7)	120 (12.0)	113 (11.3)
학교안전	75 ( 7.5)	163 (16.3)	107 (10.7)
놀이, 스포츠활동 안전	96 ( 9.6)	102 (10.2)	108 (10.8)
물놀이안전 및 응급처치	91 ( 9.1)	142 (14.2)	131 (13.1)
화재안전	211 (21.0)	244 (24.4)	220 (22.0)
중독 및 질식사고 예방	88 ( 8.8)	98 ( 9.8)	153 (15.3)
교통안전	173 (17.2)	130 (13.0)	162 (16.2)
기타	2 ( 0.2)	2 ( 0.2)	7 ( 0.7)
<b>중학생</b>			
가정안전	130 (23.9)	63 (11.7)	67 (12.5)
학교안전	71 (13.1)	104 (19.3)	76 (14.2)
놀이, 스포츠활동 안전	44 ( 8.1)	48 ( 8.9)	72 (13.4)
물놀이안전 및 응급처치	20 ( 3.7)	58 (10.8)	65 (12.1)
화재안전	112 (20.6)	139 (25.8)	85 (15.8)
중독 및 질식사고 예방	22 ( 4.1)	33 ( 6.1)	56 (10.4)
교통안전	143 (26.3)	91 (16.9)	114 (21.2)
기타	1 ( 0.2)	2 ( 0.4)	2 ( 0.4)
<b>고등학생</b>			
가정안전	66 (13.8)	54 (11.4)	77 (16.3)
학교안전	54 (11.3)	75 (15.9)	66 (14.0)
놀이, 스포츠활동 안전	37 ( 7.8)	52 (11.0)	63 (13.3)
물놀이안전 및 응급처치	21 ( 4.4)	39 ( 8.2)	54 (11.4)
화재안전	85 (17.8)	128 (27.1)	85 (18.0)
중독 및 질식사고 예방	17 ( 3.6)	32 ( 6.8)	53 (11.2)
교통안전	195 (40.9)	91 (19.2)	68 (14.4)
기타	2 ( 0.4)	2 ( 0.4)	6 ( 1.3)

\* 복수응답

표 13. 학생이 희망하는 안전교육 수업방법

단위: 명 (%)

내 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b>희망하는 안전교육 수업방법</b>			
강의	133 (13.2)	77 (14.2)	60 (12.5)
그룹토의	46 ( 4.6)	40 ( 7.4)	33 ( 6.9)
실습, 실험, 체험	543 (54.0)	245 (45.0)	228 (47.6)
견학	314 (31.2)	157 (28.9)	142 (29.6)
비디오 및 DVD상영	502 (50.0)	291 (53.5)	246 (51.4)
모형제작	202 (20.1)	72 (13.2)	74 (15.4)
사진이나 슬라이드	115 (11.4)	59 (10.8)	59 (12.3)
역할극	263 (26.2)	71 (13.1)	65 (13.6)
기타	18 ( 1.8)	5 ( 0.9)	6 ( 1.3)
<b>학교에서 시급히 다루어야 하는 새로운 안전교육의 영역</b>			
국내외 여행안전	159 (15.8)	80 (14.7)	78 (16.3)
따돌림으로부터의 안전	486 (48.4)	246 (45.1)	172 (35.8)
애완동물 안전	168 (16.7)	61 (11.2)	65 (13.5)
학교폭력 안전	729 (72.5)	377 (69.0)	242 (50.4)
전자상거래 안전	140 (13.9)	134 (24.5)	193 (40.2)
사이버 음란물 안전	213 (21.2)	151 (27.7)	176 (36.7)
기타	21 ( 2.1)	5 ( 0.9)	14 ( 2.9)

\* 복수응답

나. 교사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90%이상의 교사가 그렇다고 응답하여서 교사의 학교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에 반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연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사는 52.9%였고 실제로 안전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교사는 39.9%로 나타나서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필요성 인식은 강한 반면 실제적인 교사의 연수교육 참여의사는 소극적이었다.

효과적인 안전교육 실시를 위하여 안전교육 담당자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39.6%의 교사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교사도 29.4%나 되었다. 그러나 학교안전교육을 맡아야 하는 교사로 39.0%의 교사들이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전담교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이 담임교사였다. 학생들의 사고예방과 안전도모를 위한 해결책으로 49.5%의 교사가 안전교육 시간할당을 들

었으며 22.4%의 교사가 안전교육 담당교사의 배치를 희망하고 있었다.

표 14. 교사의 학교안전 교육 요구도

구분	명	(%)
안전교육 실시 필요성		
전혀 그렇지 않다	0	0
그렇지 않다	4	1.0
보통이다	25	6.1
그렇다	232	56.6
매우 그렇다	149	36.3
학생사고예방에 대한 해결책		
안전교육 시간할당	196	47.8
담당교사 배치	87	21.2
교사 연수교육 장려	41	10.0
교재개발	56	13.7
기타	30	7.3
교육부내 안전교육 담당부서 신설 필요		
전혀 그렇지 않다	17	4.2
그렇지 않다	75	17.8
보통이다	116	28.5
그렇다	162	39.8
매우 그렇다	37	9.1
안전교육 연수 및 보수교육 필요성		
전혀 그렇지 않다	2	0.5
그렇지 않다	43	10.5
보통이다	148	36.1
그렇다	184	44.9
매우 그렇다	33	8.0
연수 프로그램 참여 희망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11	2.6
그렇지 않다	77	18.4
보통이다	163	39.0
그렇다	146	34.9
매우 그렇다	21	5.0
교원양성과정에 안전교육 강좌개설 필요성		
전혀 그렇지 않다	3	0.7
그렇지 않다	50	11.9
보통이다	121	28.9
그렇다	209	49.9
매우 그렇다	36	8.6
학교안전교육 담당자		
담임교사	122	29.5
안전교육 담당교사	161	39.0
보건교사	98	23.7
체육교사	12	2.9
기타	20	4.8

학교안전교육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안전교육의 주제영역으로 교사들이 선정한 주제 1위는 교통안전과 학교안전이었는데 이는 학생들의 응답과 비슷한 결과였다. 그러나 놀이스포츠 안전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안전교육 요구도가 학생들과는 달리 높았는데 이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놀이스포츠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을 교사들이 학생들보다 빨리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사가 인지한 시급히 학교안전교육에 도입되어 실시해야 하는 새로운 안전교육 영역에는 학교폭력 안전이 69.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사이버음란물 안전(63.5%)과 따돌림으로부터의 안전(37.7%) 순이었다. 따라서 의도하지 않은 사고에 대한 교육만큼 학생이 의도하지 않은 사고나 위협으로부터의 안전문제가 학령기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표 15. 교사가 인지한 학교안전교육 내용의 우선 순위 단위: 명(%)

구 분	1위	2위	3위
가정안전	23 ( 5.5)	23 ( 5.5)	37 ( 8.9)
학교안전	100 (24.0)	110 (26.5)	70 (16.9)
놀이, 스포츠활동 안전	28 ( 6.7)	80 (19.3)	126 (30.4)
물놀이안전 및 응급처치	14 ( 3.4)	40 ( 9.6)	51 (12.3)
화재안전	19 ( 4.6)	48 (11.6)	55 (13.3)
중독 및 질식사고 예방	5 ( 1.2)	16 ( 3.9)	19 ( 4.6)
교통안전	226 (54.3)	97 (23.4)	55 (13.3)
기타	1 ( 0.2)	1 ( 0.2)	1 ( 0.2)

표 16 교사가 인지한 학교에서 시급히 다루어야 할 새로운 안전교육 영역

구 분	명	(%)
국내외 여행안전	26	6.3
따돌림으로부터의 안전	157	37.7
애완동물 안전	6	1.4
학교폭력 안전	288	69.2
전자상거래 안전	80	19.2
사이버 음란물 안전	264	63.5
기타	11	2.6

\* 복수응답

## IV. 학교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본 장에서는 안전교육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사고 및 안전교육 실태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안전교육 정책방안을 제안한다.

### 1. 안전교육 교과과정 정립

가. 여러 교과에 걸쳐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안전교육의 내용을 정리하여 통합적인 안전교육 영역을 구축, 강화해야 한다.

안전교육 내용은 그동안 여러 교과에 분산되어 운영되어 온 관계로 안전윤리, 안전의식, 안전지식, 안전행동 실천의 주요한 학습내용들을 통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따라서 교육에 따른 효과가 미비하였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제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정규적인 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교육 교과과정 정립, 아울러 담당교사의 연수, 담당시간의 확보 등 여러 문제들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안전교육 교과과정 마련의 필요성은 본 연구에서 실시한 학교안전교육 실태조사 연구에서도 매우 절실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안전교육 학제 정립이 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창의적 재량활동 영역 중 범교과학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교육을 교과재량활동 영역 중 선택과목 학습으로 한 단계 강화하여 안전교육 시간을 정립하고 안전교육이 학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실제로 선진국가들에서의 안전교육은 이보다 훨씬 법적으로 강화되어 있다. 유럽국가들 중 독일과 프랑스는 의무교육 과정에 안전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

여 독립교과서로 교육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주마다 교육과정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뉴욕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안전교육을 독립교과로 의무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독립교과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미국 대부분의 주와 영국, 호주 등에서는 보건교육이나 체육시간에 안전교육이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어서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안전교육은 정규교과과정 안에 구성되어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학교교육 과정에서 안전교육은 교과 재량활동 영역 안에 다범교과 학습 18개 이상 영역 중에 포함되어 있어서 일선 학교에서 선택되어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고등학교에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교과재량활동 선택과목 중 하나인 교련에 대부분의 안전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많은 고등학교들이 선택하고 있지 않아서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을 학교 수업 중에 산발적으로 짧게 다루어지거나 거의 다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교과들에 흩어져 있는 안전교육 내용들을 통합하여 교과서와 다양한 학습활동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각 학교마다 필요에 따라서 의 하나로 에 포함되어 있는 안전교육을 선택하여 독립된 교과서와 교구 및 배당 시간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체제의 정비는 여러 과목에 걸쳐 부분적으로 배웠던 안전교육 내용을 그 기본이념에서부터 각 안전교육 주제에 대한 세부내용들까지 종합적으로 학습하도록 하며 학교마다 학교가 위치한 지리적, 환경적, 학생 분포 특징을 고려하여 실효성이 높은 안전행동 요령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안전교육 교과과정 정립, 구체적인 시간마련, 교과서 개발 및 보급이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각 학교의 차원에서는 학교장, 학부모, 일선 교사들의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다.

표 17. 제 7차 중학교 재량활동 교육과정 내용

영역	하위 영역	활동 주제 및 과목
교과재량활동	기본 교과 보충 및 심화	10개 기본 교과(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 기술 및 가정, 영어)의 보충 및 심화
	선택과목 학습	한문, 컴퓨터,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기타 과목
창의적 재량활동	범교과 학습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에너지교육, 근로정신, 함양교육, 보건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소비자교육, 진로교육, 통일교육, 한국문화 정체성교육, 국제이해교육, 해양교육, 정보화 및 정보윤리교육, 기타 프로그램
	자기 주도적 학습	* 교육과정에 제시된 예시가 없음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준비에서 평가까지: 중학교, 2003.

나. 안전교육 의무시간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안전교육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현재 일선 담임교사들과 학생들이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교육 실시가 어려운 이유는 적절한 시간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자 장애요인이었다. 따라서 학교활동 중 안전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의무시간 규정이 법적, 정책적 차원에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 1) 주당 1시간의 안전교육을 보장하여 지속적인 학교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장에서 소개한 안전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생과 담임교사 모두가 적어도 매월 1시간에서 매주 1시간의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안전교육 요구도는 지속적인 학습의 연계성과 학생의 기억력을 고려할 때 주당 1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현재 분기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 공문이 발송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의 안전교육 장려취지를 일선 학교들에 반복적으로 알려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선 각 학교에서는 주당 1시간씩의 안전교육 시간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초등학교에서는 관련교과를 통한 교육과 중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 또는 재량시간을 활용하는 방안이 구

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과과정 상의 안전교육 활성화는 학교 안전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이웃과 주변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여서 학교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수립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 2) 안전교육 시범학교(초·중·고) 운영을 통하여 학교안전교육 실시의 실효성을 보완한다.

초등학교 안전교육의 통합교과화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독립교과화의 전 단계로서 안전교육 시범학교(초·중·고)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량활동시간과 각 관련교과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운 점과 보완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교육 교과과정 확립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실제적인 시범사업을 통하여 보고되는 안전교육의 사고예방 효과를 각 학교와 지역사회에 홍보하여 안전교육의 효율성을 알리고 실제 교육을 실시하면서 미처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하여 보다 현실적인 교과체계 확립을 할 수 있다. 안전교육 시범학교운영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이 활동한 학습 결과물(안전생활 일기 모음집, 안전생활 표어, 안전생활집, 안전생활 스티커 모음집 등)을 교내 개시 및 학습 자료화하여 내면화, 의식화 자료로 적극 활용한다.

둘째, 안전교육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교재작성, 시청각 자료제작 등에 필요한 연구비를 지원하고, 해당 교과교육에 활용한다.

셋째, 안전교육 담당교사들에게 승진, 재보수 교육 및 포상의 기회를 확대하여 타 학교와 교사들에게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변화와 홍보를 강화할 수 있다.

넷째, 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교육 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적극 활성화하고 효과적인 적용사례를 홍보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한 교사가 여러 학교를 맡는 순회교육 형태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안전교육을 현행 교과과정 안에 포함시켜 통합교과나 독립교과로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매월 1회의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안전교육 담당교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교안전교육의 실행과 함께 인력양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담임교사와 관련과목 교사들을 중심으로 안전교육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각 사범대학들에서 안전과목을 개설하여 규모 있게 안전교육 담당교사를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전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현안이지만 다른 기존 교과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월 1-2회 실시된다고 생각할 때, 담당교사의 주당 시수가 모자라는 문제가 생기기 쉽다.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한 교사가 2-3개 학교의 안전교육을 담당하도록 순회교육 형태의 교사인력 배정이 고려될 수 있다.

이들 안전교육 순회교사들에게 담당 학교의 학교안전관리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일들을 지원하도록 한다면 학교의 안전관련 업무를 보다 규모있게 처리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화재안전이나 수상안전에 관해서 소방서나 관련 단체들에 요청하면 각 단체의 전문가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실행되고 있다. 이미 실행되고 있는 순회교육의 형태를 잘 활용하여 안전교육 담당교사를 육성 및 채용하고 한 학교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나 각 시도 교육청 산하에 근무하면서 학교안전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는 실용적인 인력수급 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2. 안전교육 인력육성 및 교사 안전교육 재·보수 교육 활성화

앞서 언급한 안전교육 담당인력의 육성과 관련하여 순회교육 형태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순회교육 형태의 학교안전교육이 정착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동안 기존 교사들이 재보수 교육을 통해 안전교육을 맡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교육을 규모있게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인력양성 계획은 현행 담임교사나 관련 과목 교사들의 안전교육 연수, 새로 양성되는 교원들의 안전교육 의무화를 거쳐 학교 안전교육의 순회교육제도 도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가. 교사 안전교육 연수교육 강화

교련, 체육 등 안전에 관한 내용을 많이 다루는 과목담당 교사들을 우선적으로 안전교육 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들을 장려하여 연수교육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는 현직 담임교사의 재·보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현직 교사들은 정규업무와 60시간의 담당과목 연수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므로 안전교육 연수에 대한 학교장 및 교육부의 정책적 지원과 강화 그리고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가 고려될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들이 고려될 수 있다.

- 각종 자격연수, 직무연수시 학교 안전관련 과목 개설
- 안전관련 직무연수 기관의 지역별 확대
- 사례) 산업안전공단교육원에서는 36시간 과정의 초·중등학교  
        교원 안전보건교육 직무연수과정 운영
- 학교 자율 연수 시간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안전교육 실시
- 학교안전에 관한 교과 연구회를 육성
- 학교안전사고 관련 법규나 판례를 연수시 필수과정에 편성

아울러 교장, 행정가, 교감, 장학사 등 학교행정과 학교행사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행정가들을 대상으로도 안전에 관한 연수교육은 필요하다.

실제로 일선교사들과 학생들이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을지라도 행정가들이 이러한 실정을 알지 못하고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학교 교과과정에 안전교육을 도입하고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행정가들의 사고를 환기시키고 학교안전 사고와 교육에 대한 생각의 폭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일선 교사들 뿐 만 아니라 행정가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오히려 그 효과나 의의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나. 장학사, 학교장,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연수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현재 미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선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을 각 학교 수준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교육과정 확립과 아울러 학교행정과 교육과정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학사, 학교장, 학부모의 안전교육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한다면 학교안전교육 활성화의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학사급의 교육공무원과 각 학교의 학교장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안전윤리와 사고의 심각성,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안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보다 근본적인 학교안전교육 활성화를 이루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다. 대학의 교원자격 이수과목에 안전교육 도입 및 전문인력 육성

안전교육 담당교사의 양성에 앞서 안전에 대한 교육경험을 초등학교 담임교사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관련과목 교사들을 양성하는 것은 보다 현실 가능성이 큰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담임교사들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도하면서 학생 사고에 대한 경험적 이해가 있으며 관련과목 교사들은 교과내용 속에서 일부 다루어지는 안전교육 내용을 통해 안전에 대한 이해가 다른 교사들에 비해서 넓어서 교원자격 이수과목을 통해 정리된 안전교육에 관한 지식들은 이들이 일선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대학의 교육자격 이수과목에 안전교육을 도입하고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1) 안전 전문교사를 양성하여 초·중·고등학교에 배출할 수 있는 적극적인 법적·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 2) 교원양성대학이나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모든 교과목의 예비교사들은 안전 교육 및 구급처치와 관련된 과목을 필수적으로 졸업 전에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실제적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잦은 유치원에서 교사들이 간단한 응급처

치와 후송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사고의 영향을 확대하는 예가 많다는 사실을 상기하여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양성 과정에는 반드시 안전교육과 구급처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교직과목에 안전교육이나 안전생활지도 등의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대학교 및 대학원에 안전교육 관련 학과를 신설 및 증대하여 안전교육 전문가 및 석·박사 학위 자를 많이 배출하여 안전교육 전문인을 양성시켜야 한다. 실제적으로 미국에는 58개 대학과 대학원에 안전전문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안전 교육, 안전심리에 관한 학사와 석·박사 과정을 두어 지속적인 전문인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는 차기에 대두될 사회적 사고 위험의 경향 및 예지능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조기에 사고의 원인을 진단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
- 4) 안전 교과연구소 설립 및 안전에 관한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계속적인 전문가 양성 및 교사교육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 및 교과연구소의 설립이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소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을 흡수하고 양성하여 지속적인 교재개발 및 대책마련을 이룰 수 있다.

### 3. 안전윤리교육 강화

안전교육의 2가지 근본이 되는 교육원리는 ‘타인을 배려하는 윤리교육’과 ‘체험중심의 실천교육’이다. 체험중심 교육의 중요성은 각 안전교육 주제영역에 대한 지식과 행동을 유도하는 실제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안전행동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근본적인 마음가짐에 대한 교육은 사고예방 요령 및 응급처치에 비하여 극히 경시되어 왔다. 개인의 위험행동이 개인 스스로 뿐만 아니라 타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과 위험상황을 예지하고 바르게 대응하는 상황판단 능력을 어려서부터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윤리 교육내용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 실생활에서 스스로 바람직하게 실천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 보건과 안전교육에 대해 미국의 선례를 참고할 수 있다. 미국보건교육협회에서는 미국전역의 학교들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학년별 보

건교육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지식과 실천 요령을 가르치는데 앞서서 신체의 중요성과 타인과의 연계성을 철저하게 가르치므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배우게 되는 안전과 보건내용을 습득하고 실천할 확실한 이유를 스스로 확립하게 한다.

#### 4. 학교안전관리 담당 활성화

일본, 미국,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선진 외국에서는 각 학교마다 매해 학교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장 또는 의무화하고 있다. 이 안전관리 계획에는 안전시설 보수, 안전교육, 교사 안전교육 연수, 실태조사 등 학생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활동들이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데 지침이 되는 실행계획 및 지침서의 개발도 아울러 이루어지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이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환경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학교안전관리 계획은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안전을 도모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다.

실제적으로 일본 학교들에 이미 정착되어 실시되고 있는 학교안전관리 지침은 학교에서 안전 관리와 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세한 해설서의 역할을 하여 교원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학교 사고가 빈발하게 일어나는 과목이나 특별활동의 경우에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도서를 개발·보급함으로써 교원들로 하여금 학생의 안전지도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 행정가나 교사들이 학교 안전 관리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담은 안전 관리 실무 지침서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배포함으로써 학교 안전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주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학교마다 교사를 중심으로 안전 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서 학교안전관리 계획을 담당하고 학교에서의 안전 사고나 위기 발생시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호주에서도 주 차원에서 각급 학교에 학교 운영 지침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

며, 해당 지침서에 학교 안전 관리 및 교육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학교 운영 관리 지침서는 학교 안전 관리지침서의 개발 의무 사항, 학교 안전 점검 방법 및 시기, 사고 처리 방식, 학교 사고와 교사 책임과의 관련성, 위기관리 절차에 대한 지침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학교 운영 관리에 있어서 안전 관리나 지도가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학교 행정가나 교사들이 쉽게 해당 지침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고 있다.

## 5. 체험과 문제해결 중심의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활성화

현재 안전교육에 관한 시청각 교육 자료나 프로그램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일선 안전에 관심이 높은 교사들이나 안전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들에게 안전교육 시간을 마련하여 정작 실천하려고 할 때 가장 당황하는 부분이 교육 자료의 부족이며 이는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바 있다.

안전교육은 단순한 내용이라도 개인의 생활과 연관지어 잘 기억하도록 하며 유사시에 적절히 실천하도록 체험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 안전교육의 체계와 같이 사고발생의 위험군, 위험요소, 사고다발유형 등을 중심으로 실제적인 대처와 예방 기술 및 요령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문제해결식 교육방법을 채택하고, 적극적인 대처요령 및 기술 습득을 위하여 사고발생을 막기 위한 의사소통 기술, 사고발생을 피하는 의사결정 기술, 개인 안전을 위한 목표설정 기술, 친구를 상해발생에서 돕는 방법, 사고예방을 위한 정보수집 방법 등을 교과내용에서 다루는 것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현실적이어서 그 참여도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학령기별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별 안전교육 교과서 개발
- 교과서 개발에 따른 교사용 안전교육지도서 개발
- 체험교육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청각 자료 개발

표 18. 미국 공립학교 안전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기술 (단위: %)

구 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안전교육에서 다루는 내용				
화재안전	84.1	97.5	66.4	52.2
구급처치	56.2	45.3	73.2	77.4
사고발생 고위험군: 어린 연령	70.0	59.6	84.3	94.6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요인	67.0	64.0	70.7	74.9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대중매체	55.1	47.2	68.3	69.0
사고발생 및 사망 통계	52.8	47.8	52.6	76.8
교통안전	79.8	87.1	64.3	72.7
사고발생과 사회문화적 배경	61.0	53.7	75.2	69.9
놀이스포츠 기구와 안전장구 착용	86.1	91.4	81.9	67.9
수상안전	66.4	73.5	55.4	52.5
안전교육에서 다루는 기술 및 요령				
사고예방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	79.0	75.3	80.7	93.8
사고예방을 위한 의사결정 기술	94.5	96.9	89.8	91.5
개인안전을 위한 목표설정 기술	77.4	81.4	68.0	73.9
친구를 상해발생에서 돕는 방법	90.5	92.4	83.3	94.2
사고예방을 위한 정보수집 방법	47.2	44.4	49.3	56.8
또래집단의 압력으로부터 자기보호	92.6	91.9	92.5	96.5

출처: Kann 등. Health Education: Results from the School Health policies and Programs Study 2000. Journal of School Health, 2001, 71(7), 266-278.

가.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청각 교육자료를 개발해야 한다.

학생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 의식과 실천지식을 습득하는데 큰 영향을 주는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시청각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요구도 분석을 통하여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고 교육효과가 높은 시청각 교육자료 및 교사들을 위한 안전교육 지침서를 개발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호기심 유발과 주의 환기에 장점을 가지고 있는 CD-ROM, 비디오는 물론 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교육자료 개발 보급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러한 시청각 교육 자료의 개발은 교사들의 수업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효율적인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홍보 및 보급계획도 마련되어야 한다.

나. 특별(단체) 활동별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수업시간을 통한 안전교육의 실시와 아울러 학교의 다양한 활동 중 안전교육의 실시가 필요하고 수업시간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인 안전교육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학교행사나 활동을 탐색하고 이들 각각에 맞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특히, 현재와 같이 독립교과나 교과서가 없는 실정에서는 다양한 교내외 학교 활동을 활용하는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시기별로 학교활동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학교 안전신문 경시 대회, 주제별 안전사고 글짓기 대회, 안전교육 프로그램 대회, 안전사고 사진 전시회
- 안전주간을 운영하여 각종 행사를 실시(예: 사진 전시회, 안전 표어나 포스터 대회, 안전사고 발표 대회, 글짓기 대회, 강사 초빙 강연회, 안전신문 만들기 등)
- 학교 특별활동 구성 시 안전관련 반을 조직하여 운영
- 특별활동 발표회나 학교 축제 시 안전관련 행사를 마련
- 학생을 대상으로 교내 방송을 하거나 H·R시간을 이용하여 안전 관련 비디오 시청 후 토의를 하거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안전교육 실시
- 학교 안전 생활 수칙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배부, 홍보
- 생활 안전에 관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학부모는 물론 학부모를 통한 학생들의 안전교육 실시
- 어머니 교실이나 학부모 총회 등을 이용하여 안전교육 실시
- 안전사고 발생 실태나 사고 사례집 보급
- 산업체의 안전시설을 견학 및 1일 안전 체험 실습을 적극적으로 활용
- 교육방송에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방영하고, 이를 학교 안전교육에 활용

다. 지역사회에 안전 학습관 설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학교안전 교육의 장을 확대해야 한다. (안전체험 학습관, 안전교육 자료관, 안전교육공원 등)

안전교육은 어릴 때부터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학교에서만 강조한다고 한다면 그 완성도가 낮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연구 틀에서도 언급했던

것과 같이, 학생들의 안전의식과 실천은 학교, 지역사회, 가정,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 일관적으로 연계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따라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교육과 함께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곳곳에 안전교육 체험공간의 확보하고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어린이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안전을 찾고 느낄 수 있는 안전공간을 제공하여 안전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체험기회 부여하여 가족의 안전이 향상되어 질 것이다.

1) 지역사회 교통안전 체험관 운영

지역사회 중심의 안전체험관으로 현재 교통공원들이 서울 경기지역과 일부 광역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유치원이나 학교들에서 설비관계로 제한되었던 최근 적극적인 지원으로 활성화되어 그 이용률이 매우 높다.

대도시 지역에 어린이 교통공원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에게 빈발하는 교통사고 유형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적이다. 일본은 1970년부터 시행하여 현재 전국 279개소에 교통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이며 약 10만 여명의 어머니 교통안전지도자를 양성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지원하는 인력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지역사회 교통안전 체험관 운영은 1970년 2,094명의 어린이 사망자 수를 1998년 300여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2) 중앙 및 시·도별 「시민 안전체험 학습관」 설치·운영

또 다른 지역사회 안전체험관으로서 어린이 뿐만 아니라 부모가 되는 성인들의 안전문화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중앙 및 시·도 지역별로 『안전문화 전시관』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대처법과 응급처치를 짧은 시간에 실시할수록 사고의 파급효과를 크게 줄일 수 있는 화재안전과 재난에 대한 모의체험교육이 특히 필요하다. 이들은 일반시민 뿐만 아니라 초·중·고등 학생까지 연중 관람할 수 있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며 그 적용범위가 보다 효율성을 떨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의 시민 안전체험관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재해와 화재안전에 대한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있다. 재해영상 체험관, 지진·전기·가스, 응급처치, 피난 실전체험코너, 안전문화 시청각 교육장, 방재안전자료실, 소방역사 전시실 등 체험과 실습효과를 최대한 살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민안전 체험관의 건립과 운영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효율성을 더해야 한다.

- 화재안전과 재난에 대한 대피와 응급처치에 효과적
- 성인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
-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으로 활용

## 6. 시민단체들의 안전캠페인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구축

안전과 사고예방의 근본원리는 타인에 대한 배려하는 윤리의식과 일회의 올바른 의사결정과 행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서 지역사회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저변에 문화적인 배경을 구축하는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올바른 안전의식과 행동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주어서 궁극적으로는 사고예방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만으로는 현실과의 괴리를 극복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교통안전표지 지키기와 안전횡단요령을 배우고 익히더라도 실제 실천 현장에서 다수가 무시하는 문화적 환경에서는 올바른 지식이 올바른 행동으로 옮겨지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사회 주민과 시민들의 안전문화 의식을 조성할 수 있는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을 통해 다양한 캠페인과 안전운동을 활성화 하는 것은 다수 국민의 행동을 수정하는데 가장 즉각적인 방법인 법적, 정책적으로 규제와 근본적인 의식을 변화시키는 교육적 방법과 맞물려서 학교는 물론 가정과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전한 문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사고발생을 줄일 수 있는 종합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준비에서 평가까지: 중학교, 2003.
- 김영준. 안전교육의 시대적 의의와 실태에 관한 고찰. 한국안전교육학회지, 1998, 2(2); 76-84.
- 성은현 외. 학교 등의 교통안전교육 체계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국무조정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 2001.
- 이명선. 안전보건학. 계축문화사, 2001.
- 이명선. 중등학교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어린이, 청소년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포럼자료. 2002.
- 이명선과 신현유. 21세기 선진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방안.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2.
- 장석민. 학교안전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안전보건 1월호, 1999, 19-25.
- 최광석.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1.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2003.
- 한국산업안전공단, 학교안전·보건교육 체계화 및 학교 안전관리지침, 2002.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YRBSS (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t Study). CDC, 2002.
- CDC (1984). Ten leading causes of death in the United States. Atlanta, GA
- Kann 등. (2000). Health Education: Results from the School Health policies and Programs Study 2000. Journal of School Health, 71(7), 266-278.
- WHO 보건관련 통계자료페이지: <http://www3.who.int/whosis>